

# 정권교체 위해... 광주시민 또 한번의 전략적 선택

## 첫 시민운동가 출신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 배경과 과제

### 갈라진 민심 통합·국고예산 확보·측근 배제 등 급선무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조박빙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두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격차로 당선된 것은 광주 민심의 변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차기 정권 창출 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사상 최초의 시민운동가 출신의 광주시장 탄생은 광주시정 전반의 변화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 차기 대선 구도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승리 의미와 배경 = 무엇보다도 시민운동가 출신 광주시장 탄생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료 및 정치권 인사들이 광주시장 자리를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시정 전반에 대한 광주 민심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컸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관료적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 광주 시정의 변화와 광주의 업-그레이트를 원하는 민심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난하게 시정을 이끈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광주 민심 특유의 전략적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공천에 대한 반감을 컸지만 차기 대선 등을 고려, 윤장현 후보 지지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차기 대선 주자인 안철수 대표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두 차

레 이상 광주를 방문,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총력전을 펼친 것도 주효했다는 관측이다.

◇윤장현 당선자의 과제 = 광주시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전이 펼쳐지면서 민심의 분열도 상당했다는 점에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운태 후보 지지층에 위로와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보다 낮은 자세로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동의 공무원 사회를 적극적인 참여로 바꿀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 마련과 민생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행정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동의 공무원 사회를 적극적인 참여로 바꿀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 마련과 민생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행정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당선자와 부인 손화정씨가 4일 오후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당선 유력으로 발표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진순기자 jeans@

## 30년 시민운동...소통·현장 중심형 리더십 강점

### 윤장현은 누구

148만 광주시의 수장이 된 윤장현(65) 당선자는 광주 남구 구동에서 태어나 군(군의관) 복무시절을 제외하고는 광주를 단 한번도 떠나지 않은 토박이다.

안과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계 보다는 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장을 지내는 등 30여년을 시민운동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아름다운 가게 전국 대표 등을 지내며 항상 시민사회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아시아자동차(현 기아차 광주공장)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수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아시아자동차 살리기 운동본부'를 제안하고 발 벗

고 나섰고, 이를 계기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경영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하며 지역 경제살리기에 큰 역할을 했다.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함과 남의 말을 '경청'하는 리더십과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운동을 이끌면서 현장에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형' 리더십도 그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장 선거 출마는 초반부터 고비가 겹겹이었다. 그가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안철수 신당'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부터다. 이후 신당 광주시장 후보 '1순위'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비해 '박빙' 우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첫 고비를 맞았다. 민주당 측에선 현직 시장과 재선 국회의원 등 기성 정치권

의 막강한 후보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어떤 경선방법으로도 이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런 그에게 중앙당이 '전략공천' 카드를 내밀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가 됐다.

하지만, 전략공천에 대한 민심 반발도 상당해 선거 초반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렸고, 좀처럼 지지율도 오르지 않았다. 정치 입문부터 정치권 신고식을 톡톡히 치른 셈이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 하지 않고 '광주를 바꾸는 첫 시민시장'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민심 속으로 뛰어들어 시민들을 설득했고, 결국 모든 것을 넘어 승리했다. 시민사회운동을 이끌며 '시민운동 대부'로 불리던 그의 도전은 이제 광주시라는 지방정부 무대로 옮겨졌다. /최권일기자 cki@

## 시민사회단체·새정치 당직자 '연합군' 승리 이끌어

### 윤장현을 만든 사람들

윤장현 당선자 캠프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직자 등 '연합군'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정치권에 입문하고, 시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는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두터운 인물들의 역할이 컸다.

우선 윤 당선자의 핵심측근 인사들로는 함께 안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철수 공동대표 보좌관인 서정성 전 광주시의원 이 있다. 서 전 의원은 안 대표의 핵심측근으로 분류되는 '시골의사' 박경철, 강인철 변호사와 친분이 두텁고, 윤 당선자도 박 경철씨와 상당한 친분관계를 갖고 있다.

학계에서는 류한호 광주대 교수와 김용구 박사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은 윤 당선자의 정책자문단을 맡아

활동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근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공동 위원장이 힘을 보탰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남평 공동의장과 박미경 전 사무처장 등이 윤 당선자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와 류 교수, 서 보좌관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인 (사)희망나루 관계자들도 상당한 힘을 보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거기간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적인 지원은 없었다. 윤 당선자 자신이 시민운동가였던 만큼 공식적으로 시민사회 단체가 정치성향을 띠면 안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선거캠프에서는 선대본부장인 김봉채 전 서남해안포럼 사무처장과 조직본부장을 맡아 활동한 유재신 광주시 약사회장,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박병규 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이 꼽힌다.

또한,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조영택 전 국회의원도 장준호 SNS팀장, 정책팀장을 맡아 활동한 김경곤 전 김재균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고, 이광이 대변인과 이지은 공보팀장은 선거기간 윤 당선자의 '입'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와함께 윤 당선자의 수행팀을 담당할 문해옥 전 복구의원과 신당 창당 준비위 부위원장 윤 당선자의 '그림자' 역할을 해온 하대준 수행비서도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선거캠프가 아닌 외곽에서 윤 당선자를 도운 인물로는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이사장이 있다.

이밖에 윤 당선자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중앙당, 시장 당직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84회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사랑이야기  
남원에 물들다

다채로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랑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4. 6. 12(목)~6. 17(화)**  
남원시 광한루원 일원

춘향선발대회 | 춘향전길놀이(용마놀이포함) | 춘향국악대전 | 오페라춘향갈라쇼

춘향제전위원회  
Tel : 063)620-4881-5  
남원시 문화관광과  
Tel : 063)620-6181-3